

갈색 피부 이슬람 교도 소녀 살해 사건에 왜 난리법석인가?

11 월호 토론토 life 잡지에서 Mary Rogan 는 “소녀, 살해당하다: Aqsa Parves 의 짧은 생애” 라는 주제 아래 부모와 싸우고 가출한 후에 다시 집으로 유인당 한 후에 살해 당한 토론토 거주 16 살 소녀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그녀의 친부와 남자 형제가 그녀의 살인 혐의를 받았다.

그 때 당시의 상황과 그 소녀의 라이프 스타일 선택에 관련된 충돌들을 고려하여 그 살인 사건을 “명예 살인” 이라고 명명한 Toronto life 기사는 예상한대로 공공 여론 허용치의 문지기를 자처하는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문화다양성에 대해 극단적인 소견론자들은 그 기사가 이슬람 교도 소녀들에 대한 폭력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만을 기다리는 반 이슬람 교도 기사라고 주장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독단론자들은 그들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묘사한다. 원칙에 따라 이슬람 교도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비난하지만 정작 이슬람 교도 여성들에 대해 말하려는 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기에는 분명히 평범하지 않은 형태의 페미니즘이 있다.

이중잣대는 슬프지만 그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설립 이후 설립의도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 무수한 사회운동들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말이다. 이 역사는 갈색 피부의 이슬람 교도 소녀가 당한 ‘명예 살인’에 대해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페미니스트들에게도 일어났다. 그러나 사실 진보적인 체 하는 미사여구들 아래 숨으려고 하는 그들은 인종 차별 주의자들, 여성 혐오주의자들과 별 반 다를 게 없다.

특히 괴로운 사실은 극단적인 문화다양주의자들의 이슬람 교도 내부에서 이슬람 교도 기본 구조와 대항하고 여성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진보적인 그룹과 개인들의 목소리를 죽이려고 하는 데에 있다. 또한 그들은 최근 바쁘게 극 보수파 리더들과 반 변화 세력과 힘을 합치고 있다. 권력 구조에 맞섰던 운동의 리더들은 이미 반대쪽으로 돌아서 그 가부장적 권력의 구조를 감싸고 맞섰던 운동의 리더들은 이미 반대쪽으로 돌아서서 그 가부장적 권력의 구조를 감싸고 있다. 그들은 문제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Ulli Diemer